

## 사람에 대한 소중함 잠시도 잊은 적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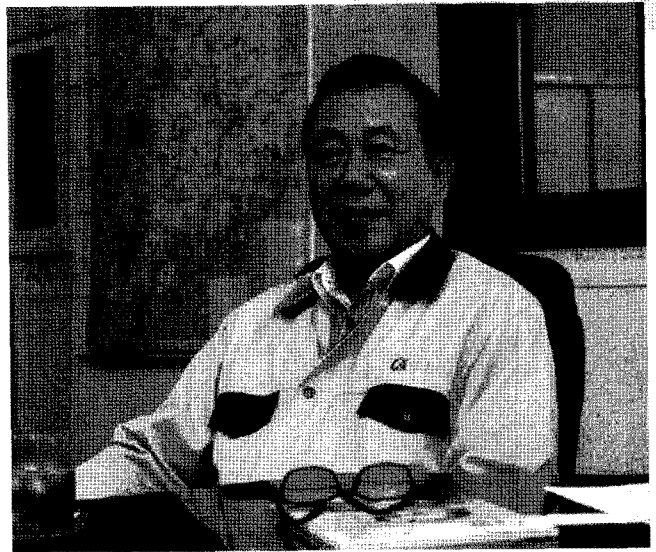
▣ (주)체리부로 김인식 회장

“내년이면 체리부로가 설립된 지 2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2008년 (주)체리피드 설립과 더불어 지난해에 (주)한길바이오 설립을 통해 1991년 창업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육계 계열화사업의 골격이 비로소 완성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일본이라는 2개의 거대 시장에 인접하여 있습니다. 육계 계열화사업이 어느 정도의 국제경쟁력을 갖춘다면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닭고기 수출을 위한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현재 신선 닭고기 수출을 위해 1차적으로 제주 현지 기업인 (주)한라씨에프엔을 통해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1991년 9월에 창업하여 20년 가까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거듭해온 체리부로는 지금은 육계 계열화 업체로서 선두그룹 반열에 올라 있는 명실상부한 닭고기 전문회사로서



자리매김을 한 성공적인 회사로 인정받고 있다. 이같은 성공신화는 (주)체리부로 김인식 회장의 탁월한 경영능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목포가 고향인 김인식 회장(69세)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를 졸업한 후 일찌감치 사료원료 및 배합사료 도·소매업으로 자영업업을 시작했다. 이후 자영업에서 손을 떼고 (주)대성미생물연구소 영업부장, (주)서울식품 초계원농장 부장, (주)퓨리나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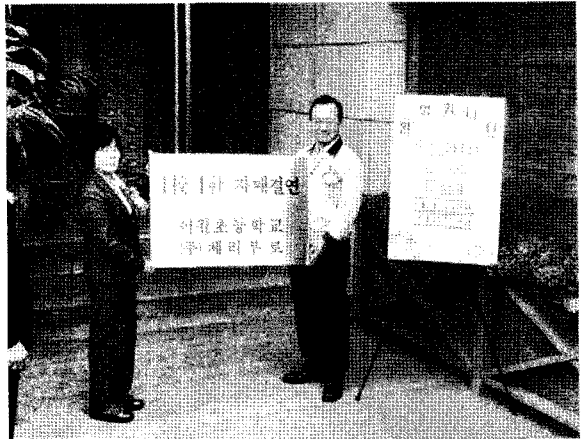
리아 기술부장·농장장, (주)대상(전 미원)사  
 료사업 담당이사·본부장, (주)대상농장 상  
 무·전무·재표이사, 대상그룹 비서실 유  
 통·축산·계열사업 담당이사 등을 역임하  
 는 등 전문경영인으로써의 기틀마련한 후  
 1991년 9월에 창업한 (주)체리부로 대표이사  
 에 취임하여 지금의 닭고기 전문회사로 성  
 장시켰다.

김인식 회장은 부드러운 외모와는 달리  
 강인한 업무추진 능력을 지녔다. 기자와의  
 인터뷰 내내 김회장은 자신에 찬 표정으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분위기를  
 압도해 나갔다. 70에 가까운 그의 나이가 믿  
 기지 않을 정도였다. 정해진 인터뷰 시간을  
 훌쩍 넘기고도 못다한 이야기 때문에 못내  
 아쉬워하는 모습이였다. 다음은 김회장과  
 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경영철학과 체리부로의  
 앞날을 조명해 본다.

**Q. 최고 경영자로서의 경영이념은?**

A.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영자로서 기  
 업의 영속성은 언제나 머리에서 떠나지 않  
 는 과제입니다. 기업을 견인하고 발전시키  
 는 중요한 구성 자원 중 하나이면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으로서, 사  
 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사람에 대한 소중함  
 을 잠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창업 이후 크고 작은 어려움을 헤쳐 오면  
 서 그 때마다 큰 힘이 된 것은 사람과의 관  
 계였으며 그 관계는 신뢰로 부터 나옵니다.  
 창업 이후 힘들었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  
 던 배경에는 농가, 협력업체, 임직원의 회사



↑ 이월초등학교와 1교1사 자매결연 행사

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  
 한 소비자의 신뢰를 얻은 제품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신뢰는 상호 소통  
 과 이해의 결과로 얻어질 수 있으며 일방적  
 이 아닌 쌍방 간의 소통 속에서 나올 수 있  
 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Q. 회장님의 좌우명과 생활신조는?**

A. 오늘 이 순간은 다시 올 수 없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후회 없이 매 순간을 열심히 살아간다는 마  
 음가짐이라면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 성격은 궁금  
 하거나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편입니다. 난제를 만나면 고  
 민도 되지만 해결했을 때의 기쁨은 그 만큼  
 크기 때문에 일을 즐기는 편입니다.

**Q. 전환기의 축산 및 사료산업이 나아갈  
 길은?**

A. 축산업이나 사료산업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경제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아 왔습니다. 무엇보다 식품산업의 연장선상에서 축산업과 사료산업의 위치와 존재를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료는 축산물의 원료이며 축산물은 그 자체로 식품일 수도 있고 식품의 원료로 이용되는, 식품의 한 종류입니다.

식품의 다양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최근의 소비 트렌드에 맞추어 축산업과 사료산업도 변화해야 자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친환경 축산과 프리미엄 축산물 생산, 그리고 이를 위한 특화 사료 생산을 위해 지속적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리부로의 예를 들자면 사료 생산은 양계 전문 사료로 특화되어 있으며 친환경 축산물을 위한 지속적 사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취임 이래 평가할 수 있는 업적들은?**

A. 체리부로 창업을 통해 육계 계열화 사업에 뛰어들어 후, 초기 HACCP인증과 시범사업을 통해 육계 계열화산업에서 HACCP인증제 안정화 기여에 일조를 했던 것, 2007년 초기부터 타 업체들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육계 계열화업체 중 가장 적극적인 닭고기 등급제 시행으로 현재 전 육계 계열업체에서 안정적으로 등급제가 시행되는 보탬이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 두 가지 제도는 수입 축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국내 육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이기에 더욱 애착이 갑니다.

회사 성장 측면에서는 2006년 설비투자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300%의 성장을 이루어 낸 것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단순한 외형성장이 아닌 모든 구성원의 노력과 전문화, 경쟁력 향상의 결과이기에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성장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Q. 회장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소망은?**

A. 체리부로는 2007년을 기점으로 3년간 외형상 300%에 가까운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전까지 진행되어 왔던 각 계열사에 대한 투자와 전문화가 결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계획은 각 계열사의 역량강화와 사업부문간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완성 된다면 체리부로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사업구조의 기업으로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Q. 앞으로 체리부로를 이끌어 나아갈 계획은?**

A.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사업부문의 선택과 집중, 전문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부문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균형적인 발전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입니다.

**Q.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항은?**

A. 육계산업의 안정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육계 자조금사업의 활성화가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산업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양돈산업과 한우산업에서의 자조금 조성과 성공적인 운영 사례는 육

계 자조급 사업의 미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육계 계열화업은 어느 일부분에 편중될 없이 '생산·가공·유통·소비' 각 부문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성숙되고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육계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미, 한·EU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육계 산업은 생산원가 경쟁력 확보와 규모의 경쟁력 차이 보완을 위한 공동 노력과 연구가 절실합니다. 이러한 목적의 육계 자조급 사업은 국내 육계산업에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회사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Q. 축산진흥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체리부로의 종합적인 개요는?

A. 체리부로는 전형적인 육계 계열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모델은 최종적으로 다녔던 직장에서 기초적인 사업안을 구상했었으며 직장을 그만두고 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

립이유이라면, 어려서부터 축산업을 좋아했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45년간 줄곧 축산업에 종사해 오면서 이 일이 싫증난 적이 한

번도 없이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주)체리부로를 중심으로 사육의 기반이 되는 원종계 사업을 하고 있는 (주)한국원종, 종계 및 부화사업의 계영농산(주), 양계 전문사료를 생산하는 (주)체리피드와 (주)한길바이오, 외식사업을 운영하는 (주)한국153농산과 (주)디에스푸드, 지역별로 (주)금계는 전남 장성에 위치하여 삼계 및 오리 계열화사업을, (주)한라씨에프엔은 제주도에서 육계 계열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도계장과 부분육 가공공장을 가동하면서 일본 시장에 신선 닭고기 수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육계 계열화사업의 정착과 확장에 따른 가장 큰 수혜자는 닭을 직접 키우는 사육 농가입니다. 가격변동이 심한 축산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사육농가에게는 가격등락에 따른 피해가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어 농촌 가계에 직접적인 보탬이 되고, 또한 생활경제 측면에서는 소비자 분들께서 쉽게 닭고기를 즐길 수 있도록 수요, 공급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

〈글사진 권영길 차장〉



↑ 지역 다문화가정 초청 행사